

# 오이이리응애(*Amblyseius cucumeris*)에 대한 저독성약제 선발 및 잔류독성

최병렬, 이시우, 김정환, 박형만, 유재기

농업과학기술원 농업해충과

총채벌레류 천적인 오이이리응애(*Amblyseius cucumeris*)에 대한 저독성 약제의 선발 및 농약이 오이이리응애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. 시설채소 재배지에 많이 사용하는 주요 살충제 중 33종의 오이이리응애 성충에 대한 독성 평가에서 스피노사드액상수화제, 치아메톡삼입상수화제, 클로치아니딘수화제, 비티아이자와이입상수화제, 클로치아니딘액상수화제 등이 낮은 독성을 보였으며, 살균제는 비타놀수화제 등 19종이 낮은 독성을 보였다. 오이이리응애에 대한 약제의 잔류독성 조사에서 처리 후 1일에 방사할 경우 생충율이 70%이상인 상대적으로 안전한 약제는 아바멕틴유제 등 13종 이었으며, 처리 후 3일에는 밀베멕틴유제, 파라핀오일유제, 클로치아니딘액상수화제, 이미다클로프리드수화제, 클로르훼나피르유제 등이 안전한 약제에 포함되었다. 약제처리 후 7일에 안전한 약제는 스피노사드입상수화제 등 4종이었으며, 14일에는 델타린유제 등 9종이 포함되었다. 대체로 합성피레스로이드계 약제가 처리 후 21일까지도 낮은 생충율을 보여 오이이리응애에 대해 높은 잔류 독성을 나타내었다. 전반적으로 살균제는 오이이리응애에 대한 잔류 독성이 낮았다.